



스크린의 감동 책으로 또 한번

‘1987’ ‘신과함께’ 흥행에 원작 판매 급증 6월 항쟁 등 근현대사 다룬 책도 상승세



◀‘1987’에 출연한 유해진

영화 ‘1987’, ‘신과함께-죄와 벌’ 등이 바람몰이를 하면서 원작의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작가에 대한 기대감, 탄탄한 스토리, 흡입력 있는 서사 등이 맞물려 독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눈에 띄는 점은 ‘1987’ 관련 도서 구매자로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후 세대인 40대(28%)와 30대(24%) 등에서 구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중추 세대로 지남 시절의 민주화의 열망과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23일 인터파크도서에 따르면 영화 ‘1987’과 관련된 도서 23종에 대한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최근 3주간(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해당 도서의 판매량이 이전 3주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987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시간이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직전제 개헌안을 쟁취한 역사적인 해다.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1987’이 주목을 받으면서 근현대사와 아울러 민주화 투쟁

당시의 상황을 소재로 했던 책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유시민 작가의 ‘나의 한국현대사’이다. 2014년 출간된 이 책은 저자인 유시민이 태어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간의 현대사를 정리한 책이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10월 유신과 10.26까지 굵적굵직한 정치적 이슈와 저자의 개인적 경험 등이 담겨있다. 유시민이 높아지면서 1월 셋째주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송곳’의 최규석 작가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소재로 그린 만화 ‘100°C’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생생하게 그려내 2009년 초판 발간 이후 여러 곳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민주화운동의 정점이었던 87년 6월항쟁 시기의 엄혹함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저자 특유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지난해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개정판이 출간됐다.

이밖에 관련 도서로 당시 사건을 최초 보도한 신성호 기자의 취재일지를 시작으

로 6.29 선언을 일귀 내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특종 1987’, 이한열 열사의 마지막 달을 꼼꼼하게 기록한 김정희 씨의 ‘1987 이한열’도 인기를 끌고 있다.

구매자 분석에 따르면 ‘1987’ 관련 도서 구매자는 민주항쟁 직후 세대인 40대(28%)와 30대(24%) 등에서 구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젊은 시절 1987년을 몸소 겪었던 60대 이상(16%)과 50대(13%)에 이어 20대(12%), 10대(6%)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54%, 남성은 46%로 여성의 구매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파크도서는 오는 2월 11일까지 영화 ‘1987’ 관련 도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뜨거웠던 6월의 기억 1987’ 기획전을 진행한다.

올해 첫 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의 인기로 합입어 추호민 작가의 원작 ‘신과 함께’(전 8권 박스세

트)도 최근 4주간 70.4%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작 ‘신과 함께’는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으로 나뉘는데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는 원작 ‘저승편’을 영화화한 것이다. 올 여름 ‘신과 함께’ 속편이 개봉될 예정으로, 특히 ‘신과 함께’(전 8권 박스 세트)는 전권을 차례대로 보고자하는 독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인터파크도서 관계자는 “등장인물이나 내용 전개 등 원작과 영화 사이의 싱크로율(비교되는 대상이 들어맞는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훌륭한 재미”라며 “기존 독자와 영화를 먼저 접한 이들이 원작 도서를 다시 한번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을 사업 확정

한·중·일 참여 프린지페스티벌, 오픈스쿨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손정연·이하 지원 포럼)이 올해 사업을 확정했다.

지원 포럼은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원포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 결산과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국제문화도시 포럼, ‘아문도시’ 이슈 포럼, 문화공간 토크콘서트, 문화전당 개관 3주년 시민 토포론회,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현장 활동가들을 초청해 현장 사례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하는 ‘국제문

화도시 포럼’이 열리며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한 광주 문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아문도시’ 이슈포럼도 꾸준히 진행될 계획이다.

활발한 교류 활동도 펼친다. 5월에는 원년 동아시아문화도시였던 광주시,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의 정기교류를 위해 ‘문화도시 초청 광주 인터내셔널 프린지페스티벌’을 진행하며 2018 요코하마 예술제, 취안저우시 국제 예술제에도 참여한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강의와 전담투어를 진행하는 ‘문화공간 토크 콘서트’는 다문화센터, 고려인 마을, 청



지난 17일 진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정기총회 모습.

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밖에 올해는 광주가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알아야할 주요 문화예술 트렌드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문 강좌 ‘문화도시 광주’ 오픈 스쿨도 시작한다.

지원포럼은 시민문화·예술진흥 분과, 문화전당 도시환경 분과, 문화산업·관광 분과, 문화교류 홍보 분과 등으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용기 우암학원장 교육철학 집대성

‘...교육과 삶’ 상·하 발간

학교법인 우암학원(남부대, 전남과 학대, 육과 고) 조용기 학원장(92)의 삶과 교육철학을 집대성한 책이 발간됐다.



우암교육사상연구소는 최근 우암선생이 직접 쓴 논설과 논문, 강연록 등 귀한 체험기록을 엮은 ‘우암(愚岩)의 교육과 삶’(2권·조선뉴스프레스·사진)을 펴냈다.

우암학원 설립자 조용기 선생은 1926년 곡성군 옥과면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와 미국 하와이 퍼시픽 웨스턴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중학시절부터 사랑방아학을 시작해 해방 후 광주 숭실중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말이면 고향에 내려가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우암은 문맹과 가난에 시달리는 지역민을 위해 교사직을 시작하고, 1950년 옥과에 천막교실을 만들고 청소년 배움터 ‘옥과농민고등원’을 세웠다.

이렇게 시작된 우암학원은 옥과고, 전남과대학, 남부대학교를 비롯한 9개 교육 관련 기관으로 성장했다.

선생은 농촌운동과 교육사업을 평생 과업으로 삼아 백수를 바라보는 지금도 강단에서 ‘인간학’ 강의를 할 정도로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강단에 서있는 모습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삶의 교재’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책에는 24세 젊은 나이에 옥과에 천막학교를 설립한 이후 평생을 교육 현

장에서 인재를 키워온 우암의 지난은 발자취와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다.

책은 모두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 제1부는 우암선생의 교육사상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흔 넘어 인간학 강의하는 100세 시대의 롤 모델’ 집중 인터뷰를 시작으로 황승룡 전 호신대 총장의 ‘우암학원의 설립이념 삼애정신과 교육’,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의 ‘한국 사립학교법의 가치 투쟁’,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조용기와 사학의 자유’, 제철용 한양대 법과 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 등이 실려 있다.

상권 2부는 우암선생의 스피치와 화법과 관련된 글이 정리돼 있다. 논설, 기고문, 세미나·강연록, 축사, 회고사, 대화사 등 선생의 철학과 신념이 담긴 내용들로 꾸며져 있다.

하권 3부와 4부에는 우암선생의 인간학과 언론사 대담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각각 ‘우암 비전록 특강’, ‘우암 인간학 강의록’, 그리고 ‘언론사 대담’ 등으로 대내외 활동을 엿볼 수 있다. 5부에는 ‘내가 만난 우암선생’, ‘후학들이 본 우암선생’ 들로 우암과 제자들 그리고 지인들과의 관계를 다룬 글이 수록돼 있다.

마지막 6부는 부록으로 우암선생의 가족관계와 연보 그리고 우암학원 설립 배경과 취지 등이다.

조성수 남부대 총장은 발간사에서 “우암의 교육과 삶”을 집대성하는 것은 선생의 정신을 아로새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펼쳐보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학들에게 도모할 수 있는 의미와 신념, 불굴의 투지, 뜨거운 열정, 겸손한 생활의 면면을 배워 삶의 교본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외규장각 의궤’ 누리집 영문 서비스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규장각 의궤’ 누리집(www.museum.go.kr/ug-1we)의 의궤 소개, 서지사항, 반차도(班次圖·공중 행사 장면을 그린 의궤도) 해제에 대한 영문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규장각 의궤는 강화도 외규장각에 소장돼 있던 의궤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가져갔다가 2011년 장기 임대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의궤는 조선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를 기록한 종합 보고서로, 그림·글씨·표지·종이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된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 1층 조선실에 전시 중인 외규장각 의궤를 지난 16일 교체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의궤는 조선 제21대 임금인 영조(재위 1724~1776)와 관련된 유물 4건이다.

그중 영조가 계비인 정순왕후(1745~1805)와 1759년 혼례를 올리는 모습을 묘사한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는 가례 반차도에 국왕의 행렬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의궤다.

연합뉴스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